

여수시, 섬섬여수 보건복지플랫폼 ‘민관 원스톱 서비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모사업으로 올해 참여 기관·대상 대폭 확대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9.6%...통합사례관리사 배치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대

여수시가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인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여수형 민관협력 모델 구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은 지역사회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 통합돌봄 기반 및 통합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했다.

여수시는 올해 작년 10개 읍면동에서

27개 전 읍면동으로, 수행기관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대상 또한 노인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등 전 취약계층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수행기관은 8개 기관으로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사회복지관(쌍봉·소라·문수·미평), 노인복지관(여수·동여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참여하며, 통합사례관리사 배치로 민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행기관은 읍면동과 협업해 ▲사례관리(위기가구 발굴, 관리, 서비스 연계),

▲마을복지(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재가복지(맞춤형 영양반찬, 재가서비스), ▲건강지원(병원치료 동행서비스, 전문의료 지원·연계) 등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9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고 보완해 체감도 높은 여수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순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과 업무 협약

지역사회 민간-공공협력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

순천시는 최근 순천의료원, 성가톨릭병원,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순천로컬푸드, 대한미용사회 순천시지부, 해늘사회복지기업협동조합 7개 기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방문진료 및 운동지도, 건강식사 지원, 안심생활방역·청소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에 협약 체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기관과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인 선도기간(2년 4개월) 동안 총 21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순천형 통합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장흥군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저귀 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자에 관산읍 최고령 어르신 및 다자녀 가구도 포함

장흥군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김주호, 천충열)는 지난달 30일 관내 각종 만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올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자들의 기저귀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 18명, 2021년도 출생 아동 4명으로 총

지원 대상자 22명 선정 후 10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 및 출생 축하 격려도 함께 추진했다.

김주호 관산읍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과 출산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펴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향후 출



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광주동부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 개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월30일 대강당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초·중·고교지원과 최영선 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5명과 경찰서·광주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광주성폭력상담소·광주발달장애인지원

센터·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외부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 지원에 따른 역할, 더봄학생(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장애 학생 대상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정기 현장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학교에 홍보할 예정이다.

최윤희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